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Vol. 49 | 2021 Autumn

SEES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Contents

PART 1. SEES HEADLINE — 01

- 『퇴임사』 | 김광열 교수
- 『정든 지구환경과학부를 떠나면서』
| 손병주 교수

PART 2. SEES PEOPLE — 06

동문칼럼

- 『극지연구소에서의 소중한 경험
- 장점에 집중하기』
| 윤승태 교수

학생칼럼

- WATS 소개
-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 학부생 졸업후기

PART 3. SEES CULTURE — 12

- 시로 읽는 지구환경 | 이창복 명예교수
- 정해진 교수님의 수업유머! | 정해진 교수
- 학생회 행사 & 공지사항
- SEES EVENT

PART 4. SEES INSIDE — 16

SEES News

- 교수님 동정
- 동문소식
- 학부소식

4단계 BK21사업 소식

연구소 News

- 대기환경연구소
- 지질환경연구소
- 해양연구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일정

자연대 연구분야 소개 영상

<연구뭐하지?> 지환부 편 업로드 일정

학사일정

HEADLINE

퇴임사

김광열 교수



2009년 1월 외국인 교수로 부임한 후 12년 반 동안 자랑스러운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온 힘을 경주하여 추구한 학문의 길을 접어야 한다는 서운함도 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약간 막막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위안도 있습니다. 퇴임사를 부탁받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라면 당연히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하여 대기과학 특별히 유체 운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제게는 가장 신경 쓰이고 보람 있었던 교수로서의 임무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의 노트를 수백 장씩 만들면서도 학생들이 이 노트를 유용하게 쓸 것이라는 희망과 기쁨이 있어 열심히 강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매번 설렘을 갖고 강의실에 갔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준비한 강의의 내용이 빨리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칠판 앞에서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던 기억도 납니다. 그 결과로 강의 평가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이 너무 해매신다” 하고 썼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제게 강의는 학문의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가르쳤던 학생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나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나 저에게는 모두 깨물면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엄격한(?) 잣대로 인하여 마음앓이를 했던 학생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학생들을 잘 지도 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 정리된 강의 노트가 책으로 출판된 것은 저에게는 큰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기초유체역학, 기상통계학, 컴퓨터 핵심 강의가 3권의 책—Fundamentals of Fluid Dynamics (368 pp), Cyclostationary EOF Analysis (1,022 pp),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794 pp, under review)—으로 탄생한 것은 교육자로서 큰 영광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책들이지만 이 책들이 완성되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연습 문제를 만들고, 답을 달고, 교정하는 과정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정열이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학생들과 학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자로서의 생활은 미국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우선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았고 또 가르치는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이 미국의 좋은 대학교 학생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6명의 박사과 5명의 석사를 배출하였고 학생들의 논문만 38편(학생 주저자 논문 28편), 평균 1년에 3편 정도씩 학생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저로서는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박사 학위자가 자연대 최우수 논문상 후보로 추천되었고 2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한 명은 지구환경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석사 과정 학생들도 모두 논문을 써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실험실 내규는 그들의 자존심을 고양하고 박사과정에 진입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대학원생들이 있어 미국에서 보다 훨씬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자연대 학생부학장을 맡고 미국 Ivy League 학부생들의 졸업논문이 종종 좋은 저널에 실린다는 것을 알고 학부생 연구 인턴십과 GLEAP(Global Leadership Program)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생 연구 인턴십을 통하여 많은 학부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실험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어떤 실험실을 선택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는지 관계없이 교수님의 실험실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진로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특별히 몇 학부생은 논문 작성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 SCI(E) 저널에 6편(학생 주저자 5편)의 논문이 게재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도 Ivy League 학교와 같이 학부생 논문이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 중 한 논문은 지난 1년 동안 일곱 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그 수준이 높은 연구라 생각합니다.



학업 외의 실험실 회식, 지도 학부생들과의 간담회, 실험실 수련회, 국제 학술대회 참가, 제주도/울릉도 야외 수업 등의 학생들과의 교류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동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 딸보다 더 어린 학생들과 대화가 될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는 있을까? 끈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는 신선하고 그 시간은 항상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실험실 밖의 모임에서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또 연구 시간에 할 수 없었던 말도 많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저의 또 다른 면모를 볼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공 주임, 학부장을 맡으면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메마른 아카데미아에서 마른 목을 축여주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적인 것은 너무 문외한이라 행정실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도 뛰어나지만 학부 일을 위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제주도 수련회는 평생 잊지 못할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할 즐거운 추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퇴임하면서 학부/대학원 학생들에게 자신의 긍지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르친 지구환경과학부 학생 중에 훌륭한 재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수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부 학생들 중에도 미국에 유학 가서 매우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스승의 날 저에게 찾아와서 지난 학기 자신이 학과에서 제일 잘 했다고 저에게 자랑한 학생도 몇 있습니다. 나는 잘 할 수 있어, 나는 잘 해.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학문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자가 되는 것도 꽤 괜찮은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논어에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불역열호(不亦說乎)”라 하시면서 “항상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평생 매일 공부하고 익히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구환경과학을 더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은 교수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의 본분이고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은 교수의 긍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의당 연구에도 매진해야 하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의 학문후속세대는 매우 희망적이라 할 것입니다. 교수님들 모두 자기 분야에서 투철한 연구자가 되시고 대한민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본인의 좋은 연구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좋은 교육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 경험한 것, 바라던 것, 이론 것,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쓰고 싶어 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하고 서울대학교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미래는 불확실하여 약간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서울대학교에서의 많은 좋은 추억들은 항상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의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따라와 준 학생들, 행정적으로 도와준 직원들, 또 동료로서 격려해 준 교수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퇴임의 변 - 정든 지구환경과학부를 떠나면서

손병주 교수



학부에서 정년을 맞아 퇴임에 임하는 인사를 하라고 하기에, 지난 옛일들을 되돌아보며 잠시 추억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름 좋은 시간이었다. 1993년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조교수로 부임하고, 2000년 갓 시작한 BK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구환경과학부로 적을 옮긴 후 이번 8월 말에 정년을 하게 되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 내놓고 자랑할만한 업적도 없지만 큰 문제 없이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 주변 교수님들의 도움과 우수한 학생들 덕분에 것 같다. 주변의 동료 교수님들께 그리고 제 실험실을 거쳐 사회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눈을 외부로 돌려보면 서울대학교만 한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도 없는 것이니 군과 유학시절을 서울대의 어딘가에 있었던 나의 서울대 생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 같다. 더욱이 우수한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되돌아보니 나름 즐겁고 뜻깊은 시간도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014년부터 지구환경과학부 학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애썼던 일들이 그중 보람되게 느껴진다. 학부 홈페이지 개선 회의에 참가하고, 이른 아침 해동 김정식 회장 앞에서 현재의 도서관과 전산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프로포절을 발표하거나, 볼품없었던 학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학부장실과 소회의실을 새로 장만하던 일들은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로 기억된다. 방학 내내 먼지와 소음으로 불편하셨을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함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웹페이지 개선과 같은 많은 여러 활동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교를 떠나면서 우리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 실험실의 대학원생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대중음악 중에서 나지막이 때로는 높이 마음속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음유시인 아이유 노래를 특히 좋아한다. 노래 외에도 아이유씨가 쏟아 온 연습생으로서의 노력과 더불어 성공한 이후의 자세 또한 존경한다. 우리는 자칫 성공이란 외적 결과나 현재의 화려함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는 듯하다. 그러나 오히려 성공하기까지 그들이 쏟아부었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한들 노력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본다. 우리 학생들도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잘 짜인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느새 원해왔던 자리에 서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열심히 추구하고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 되길 권유한다.

또한 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책을 읽고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책은 평생을 통해 우리의 지적 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식견을 습득하는 창구로 생각한다. 또 책을 쓴 이와 대화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책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 풍부해지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고 또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각오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일생을 통해 항상 책을 가까이하면서 탐구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글쓰기 연습을 계속하길 권하고 싶다. 생각을 글로 옮기고 이를 남이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긴요한 무기이다. 요즘과 같이 모든 일이 쾌속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단타성의 생각과 다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순간순간의 결정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일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삶의 깊이가 없어진다. 우리 학생들은 한국어가 되었던 영어가 되었던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여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장만하기 바란다. 나는 출중하지 않은 재주에다가 게으름까지 피워서 우리말로 그렇고 영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정년의 시점에 참으로 많이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 젊어서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 사람들의 능력도 사람 수만큼 다양하여, 내 좁은 소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일찍 간파했어야 했다. 나에게 없는 많은 장점들이 다른 사람들에 있음을 일찍 알았어야 했다. 이 지면을 빌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면 정중히 사과드린다.

정년 후의 삶은 근력이 없어지고 기력도 쇠하는 노년의 생활이 되겠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배우기를 지속했으면 좋겠다. 늙음은 스멀스멀 찾아오는 권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항상 새롭고 흥미 있는 일이 아침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흥미 있는 일들을 찾고 싶다. 늘 새롭게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팔십이 되어도 젊은 사람이며, 갓 스물이라도 배우기를 그친 사람은 이미 늙은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동문칼럼

극지연구소에서의 소중한 경험 - 장점에 집중하기

윤승태 교수 |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해양학전공)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윤승태라고 합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부터 열심히 봤었던 SEES letter인데 이렇게 직접 선배님들께 글을 쓰자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네요. 우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 칼럼 작성 의뢰를 받고 지환부 선배님들께 어떤 얘기를 들려 드릴까 고민을 하다, 저의 그리 많지 않은 경험들 중 극지연구소에서의 박사 후 연구원 시절에 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8월 동해에서의 해양 물리 연구를 통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학위를 마무리할 무렵에는 외국에서의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해 해외 대학들을 탐색하고 박사 후 과정 지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극지연구소에서 극지 해양 물리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박사 후 연구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연구 환경도 바꿔보고 해외 지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내 연구 기관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겠다 싶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졸업 후 바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극지연구소에서 속했던 부서는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이었습니다. 해당 사업단은 2014년 시작한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해수부 R&D 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인데, 다학제적인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부서가 구성되다 보니 소속 연구원들의 전공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저는 사업단 내 유일한 해양 물리 분야 학위자로서 극지 해양 물리 연구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제 전공 분야와 관련해 심도 있는 조연을 해 줄 연구자가 없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사업단은 높은 연구 자유도를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첫 남극 출장에서 해양 계류선 설치 작업 모습
(왼쪽, 저 멀리 보이는 빙하는 드라이갈스키 빙설), 로스해 테라노바만에서 바라본 남극 장보고기지 모습(오른쪽)

극지연구소에 입소하기 이전까지 남극과 북극은 논문으로만 접해왔던 곳들이었기 때문에 입소 초기에는 해양 물리 자료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동해와는 다른 남극 해양 현상들에 관해 공부하기 위해 관련 논문들을 리뷰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또한 입소한 해 10월에는 학위 과정 때 받은 상 덕분에 극지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가 생겨, 남극 관문 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를 방문하였으며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에서 진행되는 PCAS(Postgraduate Certificate in Antarctic Studie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남극을 알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약 2개월여의 남극 출장 참여를 통해 남극 해양을 경험하고 자료도 직접 획득하면서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남극 해양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LIONESS(Land-Ice/Ocean Network Exploration with Semiautonomous Systems)라는 극지 관측 및 연구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과 활발한 협력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극지 해양 물리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이들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대학 박사 후 과정 지원은 실패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사업단에서 외국 연구진들과 협력을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연수 못지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2019년과 2020년에는 2편의 SCIE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참여했던 PCAS 프로그램 수료증

2019년 사업단은 장보고기지 사업 이후로 새로운 해수부 R&D 과제인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돌발붕괴의 기작구명 및 해수면 상승 영향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 규모가 장보고기지 사업에 비해 약 4배 정도 컸습니다. 또한 이 과제를 통해 극지연구소가 2018년부터 시작한 미국-영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 'ITGC(International Thwaites Glacier Collaboration project)'의 공식적인 국제 파트너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사업단의 규모도 더 커졌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저는 젊은 연구자로서 BAS(British Antarctic Survey, 영국의 극지연구소)에서 주최하는 ITGC:The Next Generation에 초청되어 ITGC 프로젝트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GC 프로젝트와 사업단에서 획득한 2020년 2월 스웨이트 빙하 근처 해양 자료를 활용하여 ITGC 프로젝트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ITGC: The Next Generation에 참석하여 Ocean circulation & Delivery of heat의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물론 고생스럽고 힘든 때도 많았지만 극지연구소에서의 약 4년 동안의 연수연구원 기간은 한 연구자로서의 독립성과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연수연구원 생활이었지만 사업단의 단장님을 비롯하여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제 협력의 장(場) 안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복기해보면, 사업단이 가진 많은 장점들 덕분에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런 기회들이 다양한 연구 경험과 결과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도 박사 학위 졸업 이후에 박사 후 과정을 밟아나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곳에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든지 앞으로 자신의 연구 커리어에 큰

밀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약 10년 정도 해양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며 깨달은 점은 결국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해양학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국내 최고의 지구과학 관련 학과에 속한 우리 후배님들이 해양학자의 길에 많이들 도전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저도 앞으로 해양학자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후배분들이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애기드린 내용들이 각자 분야에서 고군분투 중이신 우리 선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메일 주세요(styoon@knu.ac.kr). 그리고 제가 올해 3월부터 전남일보에 '이타적 유전자 - 해양학자의 환경일기' 칼럼을 연재 중인데 이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파이팅!!하시고 다음번에는 글이 아닌 대면으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 2011.2.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학사)
- 2017.8.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석박사 통합과정, 이학박사)
- 2017.9.-2021.2. 극지연구소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現 빙하환경연구본부) 연수연구원
- 2021.3.-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조교수

학생칼럼 _ WATS 소개

WATS와 함께라면 WATS the matter

정지원 | 학사과정 20학번

오지현 | 학사과정 21학번



‘왓츠’는 09학번 장민희 선배가 개설하신 동아리로 학술 강연 주최나 연구소를 방문하는 진로 탐색 동아리였습니다. 이는 선배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후배들에게 전해주어 후배들이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왓츠는 19학번이 입학하기 전에 모종의 이유로 사라져 선후배 사이 교류의 기회가 적어지는 결과를 도래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이번 21년도에, 개인으로서는 진행하기 힘든 선배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다양한 진로 정보를 지구환경과학부 동기들과 공유하고자 19학번 김택인 선배를 필두로 왓츠를 부활시켰습니다.

저희는 부활한 왓츠의 첫 번째 활동으로, 코로나로 인해 진로 정보의 부족함을 겪고 있는 학부생들을 위해 선배와의 만남, 이름하여 ‘진로 이즈 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비대면 행사와 대면 행사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2주일간 진행된 비대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면 행사를 통해 직접 선배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접하고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였습니다.

행사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저희는 선배와의 연락을 통해 행사정보를 전달하는 연락팀과 학부생들에게 이 행사의 계획과 의의를 전달하는 홍보팀으로 나누어 활동하였습니다. 연락팀은 먼저 선배들과 연락해 왓츠와 진로행사의 존재와 계획을 알리고 행사의 참여의사를 여쭙어보았습니다. 또한 비대면 행사의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고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대면행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락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장인이신 선배들이 이 행사의 참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의 시간대를 생각하고 정보 전달에 오해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락을 마치고 멘토님들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남은 일은 선배님들의 말씀을 더 많은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들이 듣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행사 개최를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홍보팀은 비대면 행사와 대면 행사에 대해 포스터를 작성하고, 각 학번에게 공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열띤 홍보의 결과로 비대면 행사에는 50명, 대면 행사에는 30명 정도의 학우들이 참여해 주었고, WATS 부활의 첫 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성공적인 데뷔였습니다.

비대면 행사는 zoom을 활용해 실행되었습니다. 행사의 순서는 먼저 선배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어서 후배들이 더 듣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접하는 기회가 생겼고, 또 이미 알고 있던 분야더라도 종사자의 자세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선배들을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 자연스럽게 학우들의 대면 행사의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대면행사는 우리 학부 건물의 국제회의실과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9학번 김택인 선배의 아이스브레이킹으로 WATS 첫 대면 행사는 산뜻한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멘토님들께서는 진로소개를 짧게 진행해 주시고, 이후 2명의 멘토님과 4.5명의 학우들이 조를 이뤄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지구환경과학부 선배님들의 진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 진로에 대해 품고 있던 궁금증들을 직접 여쭙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우들이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면이 있듯이, 앞으로의 행사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먼저, 비대면 멘토링과 대면 멘토링 사이의 차별성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멘토님들이 대면 행사에서도 비대면 행사 때 이용했던 자료를 이용하였고, 많은 멘토님들의 진로소개를 모두 듣다 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미 줌 미팅을 통해서 진로소개를 한 만큼 그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멘토님들을 위한 정보 전달이 늦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 진행한 피드백 설문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점, 대면 행사의 목적성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 자료 요청을 조금 급하게 한 점 등, 정보 전달이 미흡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음 행사부터는 이러한 점 또한 고려하여 멘토님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려 준비하시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왓츠의 부활은 3년 만의 진로행사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행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왓츠의 성공적인 데뷔는 앞으로의 행사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며, 미래 학우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WATS 2학기 활동 계획

1 진로 이즈 백 행사

09, 10학번 멘토님들을 모시며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던 1학기 진로이즈백과는 달리 2학기에는 전공 분야의 진로를 좀 더 세밀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1월 둘째~셋째 주에 약 3회에 걸쳐 대기/해양/지질 세 분야의 멘토님들을 모셔 대면으로 진로 소개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비대면 진로 소개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줌을 통해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비대면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 연구소/기관에 계신 멘토 분들을 섭외해보려 합니다. 이 또한 대기/해양/지질 세 분야의 멘토님들을 모셔 9월 중순 실시간 줌 회의를 통해 진로 및 연구분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3 찾아가는 WATS

WATS의 부활과 함께, 기존 WATS의 견학 프로그램이었던 찾아가는 WATS 또한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WATS를 통해 지구환경과학부와 관련이 깊은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며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생들의 진로 탐색 및 전공 분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심각하여 견학이 어려울 경우 본 행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코로나 상황을 보아 추후에 진행 여부 및 진행 시기를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학생칼럼 _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수상 소감

문승주 박사 | 박사과정 16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환경과학부 대류도시기상 연구실의 문승주입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서울대학교를 처음 방문했던 게 엇그제 같습니다. 당시 저는 오랜 기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무리 짓고 한국에 돌아올 방법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군 문제, 학업 문제, 한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겹쳐 불안해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백종진 교수님을 비롯하여 연구실 멤버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연구실을 떠난 선배분들까지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챙겨주셔서 비교적 빨리 적응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학위 과정 동안 한 연구는 혼돈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기 예측성의 탐구입니다. 학위논문의 제목은 “High-dimensional Lorenz systems, atmospheric predictability, and data assimilation” 입니다. 레일리-베나르 대류현상을 관장하는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얻은 로렌즈 시스템에 추가 물리 성분 혹은 고파수 푸리에 모드를 더해 새로운 고차원 로렌즈 시스템을 유도하였고, 새로운 시스템의 혼돈이론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끌개, 카오스의 동기화, 해의 공존 등 다양한 비선형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위 논문의 후반부는 이렇게 얻어진 결과가 대기 예측성 및 자료동화기법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수학, 물리, 대기과학의 접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학부부터 석사까지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구환경과학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대기과학을 가르쳐 주신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들, 대기과학 관련 저의 기초적인 질문도 귀찮아하지 않고 상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셨던 대류도시기상 연구실 멤버들, 학위논문의 방향성에 관해 그리고 저의 미래에 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박사커미티 교수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돈이론을 연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위과정 동안 배운 소양과 경험을 바탕으로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학위 과정 동안 들은 조언 중 하나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학위는 자격증이 아니야. 박사학위를 받은 순간부터는 본인의 학위 과정 5년 동안 한 연구보다 더 훌륭한 연구를 매년 해낼 수 있어야 해.” 새로운 모험에 앞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이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든든한 제 가족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너무 멀리 떨어져 지내도 아쉬움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저와 함께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가 익숙치 않은 한국에 와서 학위과정 내내 큰 힘이 돼준 아내,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타지에서조차 묵묵히 자신이 갈 길을 걷는 동생에게,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학생칼럼 _ 학부생 졸업후기

학부생 졸업후기

숙린아 | 학사과정 17학번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졸업을 앞둔 지구환경과학부 숙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2학기 때 입학한 중국인 유학생이며 그 당시에 지환부 유일한 외국인 신입생이었습니다. 입학도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지만, 어느새 4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사실 졸업은 저에게 아주 먼 얘기 같았지만,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졸업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시련과 성장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좋은 교수님, 조교님, 동기, 선후배를 만나서 덕분에 행복하고 알찬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많은 분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입학 초창기 때 제 한국어는 지금만큼 잘하지 못한 상태였고 학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해나가면서 공부에 대해 노후가 생기기도 하고 저만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들을 보고 배우며 제 인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동아리 활동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입학하자마자 지환부 댄스동아리 '씨댄'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와 타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같이 춤 연습하고 공연 준비한 시간은 저에게 잊히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합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 생각하면 동아리 활동 때문에 제가 더 빨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두 개의 교환프로그램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대학생활 위시리스트를 정해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져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스누인워싱턴 프로그램을 출국 3일 전에 입국제한을 당해서 미국에 가지 못했고, 또한 작년 2학기 때 가려던 네덜란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또다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우게 되어서 스스로 잠재적 가능성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수많은 날과 밤에 열심히 하는 제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으며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이창복 명예교수〉

정해진 교수님의 수업유머

열데렐라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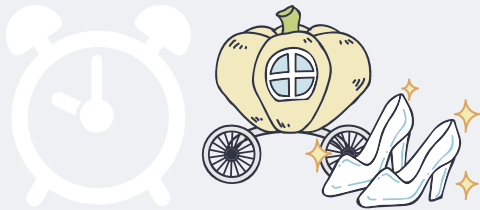
코로나로 수도권은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라고 한다네요.
10시가 되면 열데렐라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열시+신데렐라

구두 대신 마스크가 벗겨져서^^

- hj

한 말씀 더 어서 코로나 난국이 잘 해결되기를^^



백화점

백 가지의 상품이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품의 종류가

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백화점(百貨店) 대신 만화점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쇼핑하러 만화점에 간다'고 하면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 hj

한 말씀 더 00백화점 이름을 00만화점으로
바꿔야 할까요?^^

점심

A 점심으로 뭐 먹을래?

B 소세지 야채볶음

A 소 세지?

소의 해라고 아부하는거야?...

- hj



한 말씀 더 저 푸른 초원에서는
소(가) 세지^^

실

A 왜 요즘 사람들은 실 값에 관심이 많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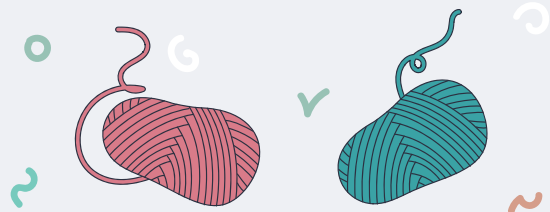
B 원소리여?

A 요즘 다들 실거래가 실거래가 하잖아

실 거래가격^^...

- hj

한 말씀 더 집만큼 큰 실타래 가격은?^^



학생회 공지

2021년 2학기 학생회 행사	11월	• 지구환경과학부 학생회 선거
	12월	• 수시 면접 응원, 생활조 발표식
	1월	• 2021학년도 지환부 신입생 OT, 자연대 과학봉사
	2월	• 신입생 새터

※ 행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hoto Zone

학부 학생회 간담회

2021. 5. 26.



8월 졸업예정자 최종졸업논문 발표

2021. 6. 15. - 2021. 8. 24.



선배와의 대화-진로이즈백 행사

2021. 6. 19.



해양환경영향평가연구단 연구실 및 사무소 개소식

2021. 7. 8., 2021. 8. 9.



2021년도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2021. 8. 25.



최우수·우수 박사학위논문상 시상식

2021. 8. 27.



SEES NEWS

교수님 동정

· 수상소식



· 세계기상의 날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손석우 교수님께서 계절내 및 계절 예측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WMO 프로그램 공동의장 등 폭넓은 국내외 활동을 통해 기상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학술상

손석우 교수님께서 장마특이 기상연구센터 설립 주도, 언론 기고 등 활발한 미디어 활동, '장마철 집중호우' 및 '기후변화로 인한 중위도 물순환 변화'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출판한 공로로 2021년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자연과학대학 연구상 수상



심민섭 교수님께서 2021년 제2차 자연과학대학 연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연구상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교수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 Science지에 논문 게재



안진호 교수님께서 공동저자로 참여하신 "Antarctic surface temperature and elevation during the Last Glacial Maximum" 논문이 빙하기-간빙기 기후변화 동안 남극 온도변화에 대한 연구로 국제 학술지인 Science에 게재되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 우수 성과과제 선정



이성근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비정질 용융체의 원자구조분석을 통한 거시적 화산시스템 과정의 미시적 이해"가 2021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가운데 지질/지구물리 분야의 우수 성과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 김수진 학술상 수상



이성근 교수님께서 2021년 한국광물학회가 수여하는 '김수진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수진 학술상'은 한국광물학회를 창립한 김수진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황청연 교수님께서 2021년도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은 전달력이 뛰어난 훌륭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교수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 교수임용/승진/선출소식



김광열 교수님께서 8월 31일 자로 정년에 이르셨습니다. 김광열 교수님께서 통계기후학분야를 연구하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손병주 교수님께서 8월 31일 자로 정년에 이르셨습니다. 손병주 교수님께서 위성기후학분야를 연구하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성 교수님께서 2021년 5월 28일 자로 국가자원연구센터소장 및 해양환경영향평가연구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영희 교수님께서 2021년 9월 1일 자로 정교수로 승진되었습니다.



안진호 교수님께서 2021년 5월 31일 자로 창립된 시흥캠퍼스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수님께서 과기부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교수님께서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교육부 지원 학술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심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교수님께서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전해교)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해교는 전국 17개 대학 해양학 전공 교수들의 협의체로 2021년 3월 창립되었습니다.

· 초청강연



이성근 교수

2021. 08. 02. Magmas beyond Megabar Pressures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 AOGS Conference 2021 (Axford Lecture 기조강연)



이상묵 교수

2021. 08. 04. Some Remarks on the Scientific Polic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Mid-Level Entry Strategy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 AOGS Conference 2021 (Wing Ip Medal Lecture 강연)

동문소식



대류/도시기상연구실의 간투야 간뱃 박사(2015년 2월 졸업, 지도교수: 백종진)가 2021년 1월 4일 자로 몽골 독일-몽골자원기술대학교 공학부 환경공학프로그램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실의 석사 졸업생인 김소진 석사(2019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정해진)가 2021년 9월 1일 자로 한국연구재단 연구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우리나라 전 학문분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의 김정현 박사(2016년 8월 졸업, 지도교수: 김규범)가 2020년 9월 1일 자로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박문재 박사(2017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정해명)가 2021년 3월 1일 자로 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의 오용화 박사(2016년 12월 졸업, 지도교수: 김규범)가 2021년 3월 1일 자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지진학연구실의 이상준 박사(2020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이준기)가 2021년 9월 1일 자로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실의 장세현 박사(2020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정해진)가 2021년 9월 1일자로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기후물리연구실의 최우석 박사(2017년 8월 졸업, 지도교수: 허창회)가 2021년 3월 1일자로 수원대학교 데이터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류/도시기상연구실의 탄비르 아흐메드 박사(협)계산과학전공, 2021년 8월 졸업, 지도교수: 백종진)가 2021년 9월 1일자로 방글라데시 샤자랄과학기술대학교 물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류/도시기상연구실의 한범순 박사(2019년 8월 졸업, 지도교수: 백종진)가 2021년 3월 1일자로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학부소식

• 학부 홈페이지 개편



우리학부의 대표 홈페이지(sees.snu.ac.kr)가 지난 5월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행정실 방문이나 전화 없이 홈페이지 방문만으로 강의실 예약을 할 수 있는 강의실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더 깔끔해진 디자인과 자세해진 학부 소개 등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니 구성원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 한국인 최초 국제기상기구(IMO)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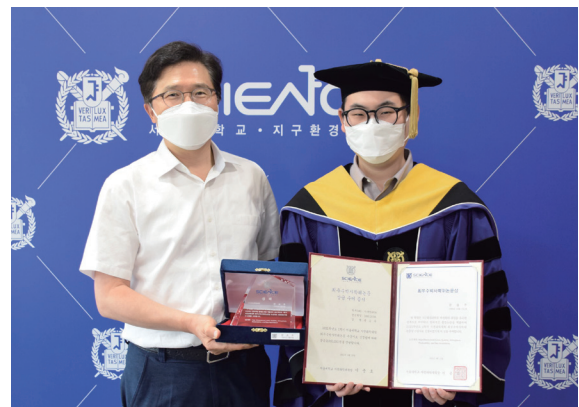
강인식 명예교수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상기구(IMO)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국제기상기구상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1955년부터 매해 기상기후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개인 1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 제7회 유미과학문화상 수상



최덕근 명예교수님께서 제7회 유미과학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유미과학문화상은 유미과학문화재단에서 매년 과학문화 창달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패와 부상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 자연과학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



대류/도시기상연구실의 문승주 박사(2021년 8월 졸업, 지도교수: 백종진)가 "High-Dimensional Lorenz Systems, Atmospheric Predictability, and Data Assimilation"로 2021학년도 1학기 자연과학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지구환경과학부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박용 박사(2021년 8월 졸업, 지도교수: 정해명)가 "Evolution of deformation microstructures of mantle xenolith and epidote blueschist: Implications for seismic properties in the lithosphere and subduction zones"로 2021학년도 1학기 지구환경과학부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학술대회 우수 발표상



날씨/기후역학실험실의 박찬일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손석우)이 'Distinct features of atmospheric rivers in the early versus late East Asian summer monsoon and their impacts on monsoon rainfall'를 주제로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soscale Convective Systems and High-Impact Weather in East Asia'에서 'Best Student Oral Presentation'을 수상하였습니다.

•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날씨/기후역학실험실의 조형오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손석우)이 'CMIP5와 CMIP6 기후모의 자료의 북태평양 스톱트랙의 한겨울 약화현상: 국지파 활동 진단변수의 관점'을 주제로 2021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국제학술지 Issue Cover 선정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최승순 석박통합과정생(지도교수: 정해명)의 논문이 스위스 국제학술지 Minerals지에 2021년 4월호 Issue Cover로 선정되었습니다. 섭입대의 로소나이트 쌍정이 지진파의 이방성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 (사)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공동학술대회 우수 구두 발표상



지구물질과학연구실의 김용현 석박통합과정생(지도교수: 이성근)이 "방사광 X-선 방출 분광분석을 통한 고압 환경에서 비정질 철 합금의 구조 전이 연구: 지구 형성 초기 핵의 분화 과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국광물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사)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공동학술대회 우수 구두 발표상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박용 박사(지도교수: 정해명)가 "고압에서 변형된 녹염석 청색편암 내부의 남섬석과 녹염석의 지진파 속도 및 이방성"을 주제로 한국암석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사)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공동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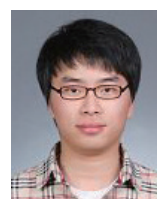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이정진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정해명)이 "섭입대에서 경록니석의 변형구조와 이것이 지진파 비등방성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한국암석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사)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공동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최승순 석박통합과정생(지도교수: 정해명)이 "로소나이트 청색편암에 존재하는 로소나이트 쌍정에 의한 지진파 이방성 감쇄 연구"를 주제로 한국암석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사)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공동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한석영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정해명)이 "군산에서 산출하는 천매암의 변형 미구조와 지진파 전파 특성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한국암석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단계 BK21사업 소식

우수연구활동 대학원생 연구성과급 지급

2021년 상반기 동안 SCI(E)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을 출판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연구활동이 우수한 대학원생 10명(석사 4명, 박사 6명)에게 연구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실시

4단계 BK21사업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지구환경과학분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교육 및 연구부문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은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를 통해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 검토 및 부실 학술활동 예방가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1회 의무수강 하여야 합니다.

연구소 NEWS

| 대기환경연구소 |

● 대기환경연구소 연구원 임용

이름	직책	임용기간
Lkhamjav Jambajamts	객원연구원	2021. 09. 01. - 2022. 08. 31.
계준경	객원연구원	2021. 07. 01. - 2021. 08. 31.
오석근	선임연구원	2021. 07. 01. - 2022. 06. 30.
박창균	선임연구원	2021. 07. 01. - 2022. 06. 30.
김주원	선임연구원	2021. 07. 01. - 2022. 06. 30.
조채윤	선임연구원	2021. 09. 01. - 2022. 08. 31.
허선경	연수연구원	2021. 05. 01. - 2022. 04. 30.
강민지	연수연구원	2021. 06. 01. - 2022. 05. 31.
김석환	연구원	2021. 07. 01. - 2022. 06. 30.

| 지질환경연구소 |

● 지질환경연구소 연구원 임용

이름	직책	임용기간
최우영	책임연구원	2021. 08. 01. - 2022. 04. 30.
황지환	책임연구원	2021. 09. 01. - 2022. 08. 31.
전원탁	선임연구원	2021. 09. 01. - 2022. 08. 31.

이름	직책	임용기간
이화주	연수연구원	2021. 09. 01. - 2022. 08. 31.
정규현	보조연구원	2021. 04. 01. - 2023. 03. 31.
신준영	보조연구원	2021. 06. 01. - 2022. 02. 28.
이혁빈	보조연구원	2021. 06. 01. - 2021. 08. 31.
이승우	보조연구원	2021. 06. 01. - 2021. 08. 31.
조리라	보조연구원	2021. 08. 01. - 2022. 07. 31.

| 해양연구소 |

○ 해양연구소 연구원 임용

이름	직책	임용기간
왕웨이홍	연구부교수	2021. 07. 01. - 2024. 02. 29.
나태희	책임연구원	2021. 06. 01. - 2022. 05. 31.
이상규	책임연구원	2021. 07. 01. - 2022. 06. 30.
노준성	선임연구원	2021. 06. 01. - 2022. 05. 31.
박성준	연구원	2021. 05. 01. - 2022. 04. 30.
엄지원	연구원	2021. 06. 01. - 2022. 05. 31.
나명균	연구원	2021. 07. 01. - 2022. 06. 30.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일정

| 학술대회 일정 |

○ 2021년 한국기상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1. 10. 13.(수) - 10. 15.(금)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학회 홈페이지 kome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및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일시 | 2021. 10. 26.(화) - 10. 28.(목)
장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자세한 사항은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 gskore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1. 11. 4.(목) - 11. 5.(금)
장소 | 휘닉스제주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학회 홈페이지 ksocean.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일정 |

● 2021학년도 2학기 SEES COLLOQUIUM 일정

• 담당교수 : 나한나

• 일시 및 장소 : 매주 수요일 12시 (2021-2학기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진행 예정)

일정	연사	소속
9월 1일	김태훈 교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9월 8일	안진호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9월 15일	박혜린 대표	이노매드
9월 29일	박재훈 교수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10월 6일	박재형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월 13일	이소영 이사	마이크로소프트
10월 27일	이동은 교수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11월 3일	김민경 교수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전공
11월 10일	김윤미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월 17일	(추후공지)	(추후공지)
11월 24일	(추후공지)	(추후공지)
12월 1일	김현나 교수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2월 8일	(추후공지)	(추후공지)

㉠ 자연대 연구분야 소개 영상 <연구뭐하지?> 지환부 편 업로드 일정

소개 교수명 (연구실명)	공개 여부	
	공개 완료	공개 예정
박정우 (해양암석지구화학)	2020/07/20 공개 (12회)	
안진호 (빙하/고기후)	2020/08/20 공개 (6회)	
김종성 (해양저서생태학)	2020/08/24 공개 (14회)	
심민섭 (지구미생물학)	2020/09/28 공개 (17회)	
손석우 (날씨/기후역학)	2020/12/14 공개 (22회)	
이성근 (지구물질과학)	2021/03/29 공개 (19회)	
우주선 (퇴적지질학)	2021/06/07 공개 (29회)	
김상우 (기후환경)	2021/06/21 공개 (30회)	
나한나 (물리해양학)	2021/08/02 공개 (33회)	
김정훈 (예보분석응용)	2021/08/17 공개 (34회)	
김덕진 (인공위성지구물리)		10월 중 공개 (37회)
남성현 (해양환경관측)		10월 중 공개 (38회)
이현우 (화산학/휘발성 성분)		11월 중 공개 (39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cfxrt7Aer0jWOaMZxMH7SA>)

에서 격주로 공개됩니다.

학사일정 _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9월

9. 1.(수)	• 제2학기 시작
9. 1.(수) ~ 9. 7.(화)	•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9. 6.(월) ~ 9. 10.(금)	• 동계 계절수업 수요조사
9. 6.(월) ~ 9. 17.(금)	• 2022학년도 제1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9. 23.(목) ~ 9. 29.(수)	• 동계 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신청
9. 29.(수)	• 수업일수 1/4선

10월

10. 4.(월) ~ 10. 8.(금)	• 2022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연합전공 신청
10. 15.(금)	• 개교기념일
10. 25.(월) ~ 10. 29.(금)	• 2022학년도 제1학기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신청
10. 26.(화)	• 제2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수업일수 2/4선
10. 28.(목) ~ 10. 29.(금)	• 제2학기 자율학습일

11월

11. 2.(화) ~ 11. 9.(화)	•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11. 19.(금)	• 수업일수 3/4선
11. 22.(월) ~ 12. 10.(금)	• 202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12월

12. 14.(화)	• 제2학기 종강
12. 15.(수) ~ 12. 21.(화)	• 제2학기 보강기간
12. 15.(수) ~ 1. 14.(금)	• 2022학년도 제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12. 15.(수) ~ 2. 28.(월)	• 2022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신청
12. 22.(수)	• 동계휴가 시작
12. 22.(수)	• 동계 계절수업 개강
12. 28.(화)	• 제2학기 성적제출 마감

1월

1. 7.(금)	•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취소 마감 (1/2선)
1. 10.(월) ~ 1. 14.(금)	• 2022학년도 전과 신청
1. 25.(화)	• 동계 계절수업 종강

2월

2. 3.(목)	• 동계 계절수업 성적제출 마감
2. 7.(월) ~ 2. 11.(금)	• 2022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신입생 등록
2. 7.(월) ~ 2. 14.(월)	•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08:30~16:00)
2. 9.(수) ~ 2. 11.(금)	• 2022학년도 학부 신입생 등록
2. 21.(월) ~ 2. 25.(금)	• 2022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
2. 25.(금)	• 전기 학위수여식
2. 28.(월)	• 제2학기 종료, 동계휴가 종료

SEES

NEWSLETTER

Vol. 49 | 2021 Autumn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일 | 2021년 9월 발행인 | 지구환경과학부장 편집인 | 지구환경과학부 뉴스레터 담당자

발행처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우 08826) Tel. 02-880-6724 Fax. 02-871-3269 E-mail. jychunccc@snu.ac.kr <http://sees.snu.ac.kr>

디자인 | 꿈인디자인 E-mail. design@kkumin.co.kr